

# KOTRA 「코로나19 비상대책반」 일일 동향 보고

- 8.4(화), 코로나19 비상대책반 -

## 서남아지역본부

### □ 현지 정부 대응 정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				
인도 (뉴델리)	□ 현황 (총 1,855,745명 확진, 52,050명 신규확진, 38,938명 사망)				
	연번	지역	누적확진자	신규확진자	사망
	1	안다만&니코바르제도	830	96	8
	2	안드라프라데시	166586	7822	1474
	3	아루나찰프라데시	1758	60	3
	4	아삼	45275	2371	105
	5	비하르	59328	2304	329
	6	찬디가르	1159	42	19
	7	차티스가르	9779	248	58
	8	다드라나가르하벨리	1274	90	2
	9	델리	138482	805	4004
	10	고아	6816	286	53
	11	구자라트	64585	1023	2486
	12	하리아나	37173	654	433
	13	히마찰프라데시	2818	115	14
	14	잠무&카슈미르	22006	590	396
	15	자르칸드	13478	955	118
	16	카르나타카	139571	4752	2496
	17	케랄라	26873	962	82
	18	라다크	1485	19	7
	19	마드야프라데시	34285	750	886
	20	마하라슈트라	450196	8968	15576
	21	마니푸르	2920	89	7
	22	미조람	501	19	0
	23	메갈라야	902	28	5
	24	나갈랜드	2129	194	5
	25	오디샤	36297	1384	197
	26	푸두체리	3982	176	52
	27	편잡	18527	674	423
	28	라자스탄	44975	1171	703
	29	시킴	688	30	1
	30	타밀나두	263222	5609	4132
	31	텔랑가나	68946	2269	540
	32	트리푸라	5505	131	27
	33	우타라칸드	7800	207	86
	34	우타르프라데시	97362	4441	1730
	35	웨스트벵갈	78232	2716	1678
	-	총계	1855745	52050	38938
*인도보건복지부 통계 8월 4일 오전 8시 기준					
*음영처리된 지역은 상위 1-10위에 포함되며, 다수 무역관 인근 및 주재지역					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인도정부, 5일(수) 요가 및 체육시설 운영 재개 관련 지침 발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일(월) 발표된 인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, 65세 이상의 노인, 임산부 및 10세 미만의 아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 불가</li> <li>- 시설 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, 산소포화도가 95% 미만인 사람들은 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모든 이용객의 Aarogya Setu 어플리케이션 사용 권장</li> </ul> <p>* Aarogya Setu :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으로, GPS를 기반으로 확진자 위치 및 접촉 여부 확인 가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31g9wF1">https://bit.ly/31g9wF1</a> 08.03</p> <p>○ 델리주 2달 반 만에 일일 사망자 수 최저치 기록 및 완치율 상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일(월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2일 기준 일일 사망자 수는 15명으로, 이는 2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사망자 수</li> <li>- 델리 지역 코로나19 완치율 또한 89.6%로, 이는 65.4%인 인도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 (하리아나 81.32%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he Indian Express <a href="https://bit.ly/2Xn90DJ">https://bit.ly/2Xn90DJ</a> 08.04</p> <p>○ 잠무카슈미르, 오는 8일(토)까지 봉쇄조치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4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5일(수) 예정된 헌법 370조 및 35A* 폐지 1주년 시위를 대비하여 당일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 유지</li> </ul> <p>* 헌법 370조 및 35A: 잠무카슈미르 자체 헌법 제정 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으로, '19.8월 모디 총리가 폐지하여 특별 자치권 박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와 더불어 지난 31일(금)부터 8월 5일(수)까지 예정되어 있는 봉쇄조치도 오는 8일(토)까지 연장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3fspeSc">https://bit.ly/3fspeSc</a> 08.03</p>

## □ 주재국 현지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정부, 중국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추가 금지 조치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난 27일(월) 중국계 우회 어플리케이션 47건을 금지한 데 이어 바이두(Baidu)와 웨이보(Weibo)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금지 조치</li> <li>- 동 어플리케이션은 구글과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삭제 조치되며, 인도정부는 향후 275건 이상의 중국계 어플리케이션 차단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Times of India <a href="https://bit.ly/2Pk6Pwz">https://bit.ly/2Pk6Pwz</a> 08.04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마루티스즈키, 자동차 판매량 회계연도 2018년 수준으로 회복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일(4일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마루티스즈키의 7월 기준 내수 판매량은 5만 1천 274대로, 6월 판매량인 1만 3천 865대에 비해 대폭 상승</li> <li>- 마루티스즈키는 10월 기준 16만에서 17만대 사이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며, 축제 시즌 이후 회복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2PoAsNe">https://bit.ly/2PoAsNe</a> 08.04</p>

## □ 현지 진출 국내기업 동향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하만인터내셔널(Harman), 무선 이어폰 '툰 TWS' 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일(월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삼성전자 계열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은 무선 이어폰인 'JBL 툰 TWS' 신제품을 출시했으며, 금년 말까지 신제품 모델 3개 추가 출시 예정</li> <li>- 하만인터내셔널은 동 신제품 출시를 통해 현재 인도 개인 오디오 시장 내 10% 미만의 점유율을 20% 이내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IndiaTV <a href="https://bit.ly/2Pm2LMn">https://bit.ly/2Pm2LMn</a> 08.03</p>

국가 (무역관)	내용
	<p>○ 태그하이브(Taghive), 인도 2천 개 학교에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납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에듀테크 기업인 태그하이브가 인도 교육부를 통해 2천 개 학교에 자사 개발 스마트 교실 제품인 클래스 사티(Class Saathi) 납품</li> <li>- 동 사는 지난 7월 8일 마디아프라데시주의 52개 지역 및 2천 80여 개 학교에 제품을 공급한 바 있으며,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 납품 계획수립 요청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동아닷컴 <a href="https://bit.ly/2XsSYIy">https://bit.ly/2XsSYIy</a> 08.04</p> <p>○ 현대차, 7월 내수 판매 98%까지 상승하며 코로나19 여파 극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일(토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현대차 7월 기준 판매량은 전년동기비 98% 성장한 3만 8천 200대이며, 이는 6월에 비해 79.2% 증가한 수치</li> <li>* 6월 판매량: 2만 1천 320대</li> <li>- 이와 같은 회복세는 6월 기준 전년동기비 75.4% 증가하며 1만 1천 549대를 기록한 '크레타(Greta)'의 판매 상황 등의 영향으로 보임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Hindustantimes <a href="https://bit.ly/3i3HdjN">https://bit.ly/3i3HdjN</a> 08.01</p>
방글라데시 (다카)	<p>○ 삼성물산, 방글라데시 메그나트 화력발전소 사업 금융조달 완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일(월) 현지 언론에 따르면, 삼성물산이 수주한 다카 인근 지역 복합화력발전사업 설립 프로젝트 대한 금융조달이 마무리되었으며, 곧 공사 착수 예정</li> <li>- 더불어 삼성물산은 해당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너럴일렉트릭(GE)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이로 인해 열 소비율 3.3% 상승, 유지 보수 간격 최대 3만 2천 시간 이상 연장 등의 효과 도모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SteelGuru <a href="https://bit.ly/31fZvHU">https://bit.ly/31fZvHU</a> 08.03</p>

## □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

국가 (무역관)	내용
인도 (뉴델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 제조업 생산량, 州별 봉쇄조치로 인해 전월대비 소폭 감소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데이터 분석회사인 IHS Markit에 따르면, 7월 기준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46으로, 6월 47.2에서 소폭 감소</li> <li>- 인도 최대의 석유기업인 Indian Oil에 따르면, 7월 첫째 주 동사의 설비가동률은 93%였으나, 지속되는 州별 봉쇄조치로 75%까지 하락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Livemint <a href="https://bit.ly/39Y1tka">https://bit.ly/39Y1tka</a> 08.03</p>
인도 (뭄바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, 한국 포함 5개국의 디지털 인쇄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도는 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디지털 인쇄판에 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</li> <li>- 작년 5월부터 개시된 반덤핑 관련 조사 결과, 해당 5개국으로부터 디지털 인쇄판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, 정상가격 이하로 인도로 수출된 것으로 판정</li> <li>-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평방미터 당 USD 0.13 ~ 0.77 수준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Financial Express (8.4)</p>
인도 (벵갈루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도, 2025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 상당의 국방 장비 국산화 계획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3일 발표된 국방산업정책(DPEPP 2020) 초안에 따르면, 인도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 상당의 국방 장비를 자국에서 생산할 계획임. 또한 2025년까지 약 5,000개의 수입 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이라고 언급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인도는 2015년-2019년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임. * Live Mint, 8.4.</p>